

** 한국 근대백화점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Interior Characteristics of Modern Department Stores in Korea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This paper has focused on comprehending the interior design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looking into the birth and changes of those built under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The first modern department stores including Mitsukoshi, Georgia and Hwashin Department Stores began to appear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y considered a variety of architectural elements like construction planning, shop arrangement, path of customer movement and interior design.

The interior of modern department stores aimed to pursue the so-called modernization movement, but failed to fully contai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in that particular period. Modern department stores took on new western styles prevailed in Korea and were characterized by the eclecticism in which various architectural forms exist together. In other words, their interiors implied a sign of the times in the confusing and corrupt world then.

Especially those modern department stores were designed, repaired and extended by foreign designers who were ignorant of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What is worse, their further remodelling practices made big mistakes by considering only functional and economical aspects and giving a back seat to the architec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existing modern department stores. Therefore, we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tudy and conserve the fundamentals of modern architectures like modern department stores in order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esthetic value of indoor space and facilitating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키워드 : 근대 실내건축, 근대백화점, 실내디자인 표현성, 실내디자인사

Keywords : Modern interior architecture, Modern Department Store, Interior design expression, History of interior design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백화점의 실내공간은 영리성의 추구라는 매우 현실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상업공간으로서 고객의 소비형태와 요구를 반영하는 대중적인 공간구성과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처럼 실내디자인의 트렌드(trand)에 민감하므로 시대적 디자인 상황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이식된 근대적인 상업제도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확한 사회적, 문화적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우리 땅에 건립된 백화점 건축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변천과정과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한국 실내디자인사의 역

명기를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점점 소멸되어가는 근대 건축물의 백화점 실내공간에 주목하여 공간구성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대백화점 실내공간의 실내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국 근대 실내디자인사의 단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대백화점의 실내공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 근대백화점의 효시인 미쓰코시에서부터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화신백화점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정한다. 또한 1916년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태동된 시기부터 시대별로 구분하고 그 시기의 대표적 백화점의 사례를 통해서 실내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1차적으로 관련 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을 통해서 조사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 논문은 경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하고 2차적으로는 현존한 백화점은 「실측조사 보고서」를 통해 실내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만 자료 정리하여 실내공간의 표현특성을 파악하였다.

2. 근대백화점의 태동과 배경적 고찰

2.1. 백화점의 태동과 근대백화점

백화점의 태동은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백화점은 1852년 세느강 좌안(Rive Gouche) 세브르 바빌론 광장(24, rue de Sévres)에 면해 있던 상점 봉 마르쉴(Bon Marché)를 확장 재개점한 때 부터였다. 봉 마르쉴은 「값이싼」이란 뜻으로 가격 정찰제 실시, 물건을 직접 고르는 자유로운 구매, 상품의 교환과 반품의 보장, 박리다매(薄利多賣)를 통한 최소한의 이윤을 고수¹⁾하는 혁신적인 판매방식을 도입하여 성공을 이루었다.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봉마르쉴은 발전하게 되어 1876년에 대대적인 증축 계획을 하게 되어 근대적인 백화점 계획을 완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872년에 라플랑셰(M.A Laplanche)가 기본계획을 하고 1876년에 에펠(Gustave Eiffel)과 보와르(L.A Boileau)가 추가적인 설계를 한 봉마르쉴은 근대 백화점의 효시가 되었다.²⁾

봉 마르쉴 백화점의 3가지 계획수법을 살펴보면 공간의 개방감과 동선처리를 위하여 중앙부에 중앙계단홀의 상부를 옥상층까지 개방하고 주변에 매장을 배치하여 매장이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옥상정원을 설치하고 천장을 계획하여 중앙홀을 광정(光庭)으로, 옥상정원은 카페로 활용하여 백화점의 장식화(裝飾化)를 위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1904년 설립된 미쓰코시 오복점(三越呉服店)이 백화점을 선언함으로써 시라키야(白木屋), 다카시마야(高島屋), 마츠야(松屋), 소고 등의 오복점의 백화점의 설립이 이루어졌다.³⁾ 이때의 마츠야 간자점과 같은 백화점의 계획방법이 봉 마르쉴의 근대백화점 계획방법에 따라 설계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내에서 일본인의 백화점 설립은 두가지 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미쓰코시⁴⁾의 경우와 같이 경성지점을 설치하여 일본의 근대적 백화점을 직수입한 경우와 조지야⁵⁾, 미라카이⁶⁾ 등과 같이 당시 한국내에서 일본인이 자신의 상점을 성장

시켜 독자적으로 근대백화점으로 발전시킨 경우였다.⁷⁾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화점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김윤배이며, 종로2가에 김윤 백화점(1916년)을 설립하였다. 물론 백화점이라기 보다는 철물류나 도자기류를 취급하는 잡화점 성격이 강했으며 근대적인 백화점의 준단계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1921년에 조지야 백화점이 메트로 미도파 자리에 들어선 이후 1922년 미나카이백화점이 옛 원호청 자리(충무로1가 45번지)에, 1926년 히라다(平田)백화점이 충무로 입구에 자리하였다. 이 시기에 백화점이라 해도 조지야와 미나카이는 양복전문점으로 유명했고, 광복후에는 미도파 백화점이 되었다. 1921년 고바야시 양복점은 조지야백화점을 세웠으며, 1931년 민족자본으로 건립된 화신백화점은 동화백화점을 인수하여 대형 근대 백화점을 태동시켰다.

2.2. 한국 근대백화점의 시대별 변천 과정

백화점이란 「부인용 기성복과 악세사리, 기성복 및 옷감, 가정용품, 기타 잡화 등을 포함하는 다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며, 판매 촉진과 서비스, 관리통계 등의 목적에서 부분별로 조직화된 대규모 소매기관」이라고 미국 마케팅협회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근대백화점은 상품의 구색도 다양해지고 매장도 부문별로 구분이 되었고, 각 판매 부문을 관장하는 별개의 조직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백화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백화점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대백화점의 발아기

1916년에 설립된 김윤백화점 이외에도 근대백화점은 최남의 덕원상회(德元商會/1916년), 유계선(劉在善)의 유림상회(鷄林商會/1918년), 이돈의(李敦儀)의 고려양행(高麗洋行/1920년), 진구범(禎九範)의 금강상회(金剛商會/1926년), 신태화(申泰和)의 화신상회(和信商會/1929년) 등이 있었다. 특히 최남이 인수하여 성장시켰던 동서부인상회(東西婦人商會)나 신태화의 화신상회는 근대적인 백화점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하였다.⁸⁾ 그러나 이 시기에 설립된 김윤백화점 등의 한국인 상점들은 단일상점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는 일점다품의 판매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점차 의류나 식기, 철물 등 취급 품목을 늘려 잡화점의 성격을 띠었다. 1920년에 들어서면서 경성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은 식품 중심의 잡화점을 확대하여 근대적 백화점을 개점하기 시작하였다.⁹⁾ 1921년에 조지야 백화점이, 1922년에는

1)오윤희·이희천 공저, 백화점 경영, 서울 남두, 2000, p.40

2)박대준, 한국상업건축의 변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p.110

3)山本武利·西澤保 공저, 百貨店の文化史, 세계사상사, 1999, pp.332-334

4)일본 굴지의 재벌그룹인 미쓰이(三井)가 1643년에 에도(江戸, 동경), 니혼바시(日本橋)에 포목점을 차린 것이 시초가 되어 이룩한 백화점. 임시 출장소격인 오복점(呉服店) 1906년을 경성에 설치한 후 1916년 르네상스식의 3층 건물을 지어 경성출장소로 개칭하고, 1926년에 경성지점으로 승격시켰다.

5)1904년에 입경하였던 조지야 상점은 소림양복점이 1921년에 주식회사로 변경함.

6)1905년 대구 동서로와 1911년 경성의 충무로에 나카에(中江勝治郎)가 설립한 미나카이 오복점(三井呉服店)은 1922년에 주식회사로 변경하

여 대형화 추세를 구축하여 1926년에 건물을 증축하였다. 미나카이 백화점은 이비시야 백화점과 대구지역의 상권을 분할하고 있었다.

7)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p.113

8)앞의 책, p.114

9)김정동, 신세계 백화점 본관 현황 및 실측 보고서, 목원대 건축근대사 연구실, 2004, p.62

미나카이 백화점이, 1926년 히라다(平田) 백화점이 세워졌다. 이 시기의 백화점들이 우리나라 근대 백화점의 발아기에 해당된다.

(2) 근대백화점의 효시

1930년 10월 미쓰이(三井) 재벌의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들어섰다. 이 시기의 백화점은 대량분배를 위한 다량의 상품을 진열하고 정해진 시기에 재고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정리하는 양판 형식(量販形式)의 업태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백화점의 대형화 추세는 미쓰코시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신관을 건축하여 3층에 불과한 본점을 일신하였고, 화신백화점은 동아백화점을 인수 한 후 동관 및 서관을 연결하여 매장을 대형화하였으며 미나카이 경성 본점이 7층, 대구지점이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건립하였고 대구지역 백화점인 이비시야 백화점이 지상 4층으로 건축되었다. 또 조지야 백화점도 5층의 대형 본점을 건설하는 등 백화점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¹⁰⁾ 또한 일인(日人)들이 독점하던 백화점 업계에 민족 자본에 의한 근대적 백화점인 화신백화점, 동아백화점, 대구의 무영당이 개점하여 경쟁하기 시작한 것도 이시기의 큰 소득이었다.

(3) 해방이후의 근대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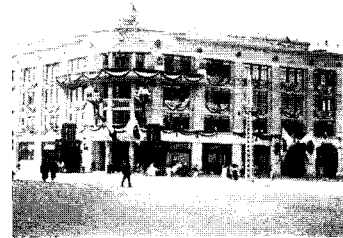
이 시기는 해방과 미군정, 6.25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권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사회로 인하여 대다수 기존 백화점은 붕괴된 유통체계로 직영체계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단일 상품코너 운영과 부정외래품을 취급하여 인식이 안 좋아진 상태로 매장 일부를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세로 운용하는 임대 형식으로 변경하여 임대상가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였다. 한편으로는 유흥업소가 임대되는가 하면 방송국 시설, 회사의 사무실로 임대가 이루어졌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원조물자와 밀수를 무대로 한 상인 자본의 발흥 및 자본 축적이 진행되면서 백화점 업계도 큰 변동을 겪게 되었다. 미쓰코시백화점은 해방 후 1945년 9월 동화백화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종업원 대표가 관리하다가 적산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6.25 전쟁시에는 미군 PX로 사용되었다.¹¹⁾ 해방직후 조지야라는 상호를 중앙백화점으로 바꾼 미도파는 적산으로 평가되 미군정청이 접수하여 미군전용PX로 사용되다가 1948년 한국무역협회에 불하되었고 이때 모든 상품과 종업원은 동화백화점으로 흡수되었다. 1950년 6.25로 인해 백화점 업계는 또 한번의 수난을 겪게 되고 전쟁이 끝난 후 서울의 백화점으로는 1954년 10월 무역협회건물의 지하와 1-3층까지 매장을 열고 영업한 미도파 백화점, 1955년 3월 재개장한 동화백화점, 동년 11월에 화신백화점 옆에 이름을 바꿔 개장한 신신백화점이 있었다. 1954년 11월 관재청에서

는 미군으로부터 동화를 정식으로 명도받아 1955년 2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어 1962년 동방생명이 인수 될 때 까지 영업이 지속되었다. 동화백화점 인수 후 동방생명은 흔들려 1963년 7월에 삼성이 동방을 인수하여 삼성은 1963년 11에 상호를 동화에서 신세계로 바꾸면서 직영화를 시작했다.

3. 근대백화점의 실내공간 사례

근대 백화점은 재래시장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업건축의 유통구조와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백화점은 「건축을 통하여 영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능이 우선시되며, 신상품, 신업태의 출현으로 생겨난 새로운 판매기능을 건축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상업건축이다.¹²⁾ 따라서 신상품, 신업태의 출현으로 인한 판매기능이 건축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건축자체가 변화되거나 일반 대중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실내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등 건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근대적 백화점의 사례로는 미쓰코시 백화점, 조지야 백화점, 종로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등이 있다. 이상의 근대 백화점들의 사례들을 관련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을 통해 실내공간 구성과 표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미쓰코시 백화점(三越百貨店)



<그림 1> 미쓰코시백화점 외관, 1930년

일본의 미쓰이 재벌은 1906년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을 충무로1가 명동 사보이 호텔자리에 개설했다. 그후 1926년 경성부청사가 현재의 서울시청 자리로 옮겨지게 되자 그 공터에 백화점을 신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 백화점은 전신인 미쓰코시 오복점(三越五服店)으로 출발하였다. 1926년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 지점으로 승격되었고, 1930년 10월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규모의 신관을 만들어 근대적 백화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¹³⁾ 미쓰코시 백화점이 한국 근대적 백화점으로서의 면모는 경영면에서 상품구성의 다양성과 철저한 정찰제, 반품제 실시 등 근대적 판매 관리를 도입하여 유통체계와 판매 및 장식에서 혁신적인 것이다. 미쓰코시 백화점의 설계는 일본의 미쓰코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되고 주무건축가는 하야시 코우헤이(林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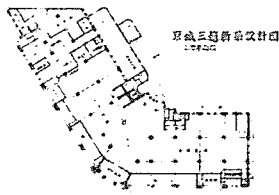
10)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p.118
11)김정동, 신세계 백화점 본관 현황 및 실측 보고서, 목원대 건축근대사 연구실, 2004, p.63

12)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p.108
13)김정동, 신세계백화점 현황 및 실측보고서, 목원대 건축근대사연구실, 2004,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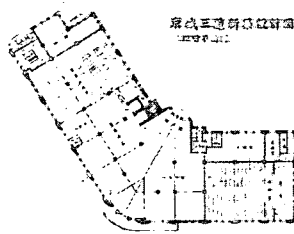
平)로 기록되어 있다.¹⁴⁾

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고객의 동선계획, 매장계획, 상품의 입출하, 직원 사무실 배치, 인테리어 등 백화점에 관련된 여러 계획적 요소에 대하여 건물단계부터 체계적인 고려가 있었다.¹⁵⁾ 이는 본격적인 백화점 건축계획의 적용과 대형화 추세가 전 시대에 비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때부터 백화점의 인테리어 분야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1) 공간구성



<그림 2> 미쓰코시백화점 1층 평면



<그림 3> 4층 평면

미쓰코시 경성지점은 근대적 백화점에 처음으로 백화점 건축계획이 적용된 사례로서 백화점과 관련된 여러 계획적 요소에 대하여 건물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고려되었다. 특히 실내디자인을 건축 계획단계부터 시행한 사례는 근대 실내디자인에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운영조직을接客부와 비接客부로 나누고接客부는 매장의 관리를 전담하며 비接客부는 외매계, 계산대, 출납계, 서무계 등으로

분화하여 매장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백화점 운영 조직¹⁶⁾을 건축계획시 부터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백화점 매장의 배치는 백화점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판형식(量販形式)으로 매장이 변하면서 취급품목의 수가 늘어나 상품의 층별 배치와 판매대의 레이아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상품선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복과 귀금속 등의 상품은 상층에 배치하고 잡화는 하층에 분리하여 세밀하게 계획되었다.¹⁷⁾

평면을 보면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매장계획과 개별동선의 분리원칙을 준수하고 중직 동선(重直動線)의 처리와 매장의 배치에 있어 중앙에 대형계단을 두고 주변으로 매장을 배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서구의 근대적 백화점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방법이다. 준공당시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지하층(425.33坪)에 베이스먼트 스토아, 실연장(實演場), 증답품상담소(贈答品相談所)와 같은 특이한 매장이 있었고, 이발실, 식당, 그리고 양품잡화를 판매하는 면적이 큰것이 특징이다.

지상1층(435坪)에는 객장에 현관, 중앙광장, 쇼윈도우, 휴게

소, 일반매장, 상품권매장, 조선물산진열소(朝鮮物産陣列所), 상담실, 여행사, 화장실 등이 배치되고 사무공간이 위치한다. 지상 중2층(110.23坪)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하여 구매계, 창고, 점원용식당, 개인물품 보관소 등이 배치되었다. 지상2층(377.88坪) 객장에는 일반매장, 쇼윈도우, 휴게실, 미용실, 드레싱룸, 사무공간이 배치되었고, 지상3층(377.88坪)에는 객장에 일반매장, 쇼윈도우, 휴게소, 제1용접실, 배란다, 제2용접실, 부인사교실, 가봉실, 마감실 등이 배치되었다. 사무공간에는 지점장실 및 부속실, 구매계실, 계단실, 변소 등이, 지상4층(373.9坪)에는 객장에 일반매장, 미쓰코시홀무대, 대식당, 휴게실과 사무공간이 배치되었고, 지상5층(143.74坪)은 옥상층으로 옥상정원, 미쓰코시 화랑(전람회장), 사진실 및 대합실, 다실(茶室), 온실 및 원예용 구매장, 화장실 등 사무공간에는 음료수매장, 계단실, 사진부, 사무실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백화점 전체 평면은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서 전면을 넓은 각으로 펼치고 곡선부에 주현관을 배치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매장은 대지에 맞추어 도로변에 길게 배치하였고¹⁸⁾ 매장의 실내공간의 배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Free flow system)을 하여 계획 초기단계에서 레이아웃과 인테리어를 동시에 고려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40여종 300개의 목재진열대와 30종 100개 이상의 각종 유리 케이스를 제작하는 등 최초로 근대적인 백화점의 매장계획을 갖추었다.¹⁹⁾

따라서 미쓰코시 백화점의 공간구성에서의 계획적 요소인 동선계획, 매장 배치, 상품의 입출하, 직원 사무실 배치, 인테리어 등 여러 요소들을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2) 실내디자인

미쓰코시백화점의 실내장식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미쓰코시 경성지점 공사개요를 보면 다카시마야(高鳥屋出張店), 매장 진열장 케이스는 다카라이 가구점(보정가구점/寶井家具店), 특수한 종류의 가구는 요코야마 황산상점(横山商店)으로 기록되어 있다.

층별 주요실 중심으로 실내의 디자인에 사용된 재료 및 요소 디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관: 마감재로는 바닥이 화장석 물갈기, 허리벽까지 대리석 마감을 하고, 벽체는 회반죽 마감을 하여 페인트칠을 하였다. 천정은 간접조명용 물딩 조각을 붙이고 내부 출입문에는 티크재를 설치하고 상부 고정창에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였다.²⁰⁾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실내의 벽 및 천정재료는 회반죽

14) 앞의 책, p.30

15) 앞의 책, p.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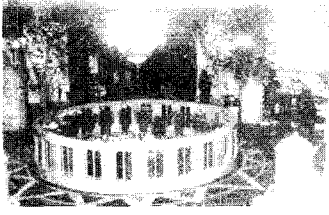
16) 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p.119

17)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제9집11호, 1930, pp.1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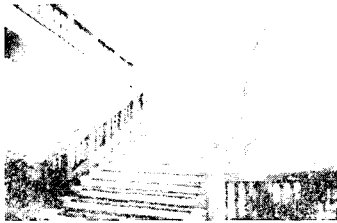
18) 김정동, 신세계백화점 현황 및 실측보고서, 목원대 건축근대사연구실, 2004, p.32

19) 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p.121

20) 김정동, 신세계백화점 현황 및 실측보고서, 목원대 건축근대사연구실, 2004, p.38



<그림 4> 미쓰코시백화점 1층 중앙광장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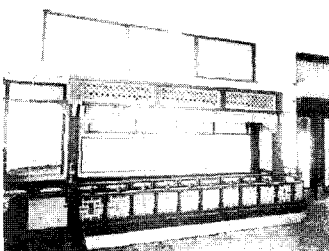
<그림 5> 미쓰코시백화점 1층 중앙계단

으로 마무리하여 칠을 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1920년대에 건립된 일제강점기의 건물의 실내마감이 주로 천정, 벽재료로는 회반죽 마감에 수성페인트칠을 하는 수법으로 처리된 것과 유사하다.

2) 중앙광장 로비 및 계단: 중앙현관과 중앙 계단사이에 직경 4.55m의 보이드(Void)를 설치하여 지하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보이드는 대리석과 주물 패널을 부착하여 보이드 주위 바닥은 대리석 및 모자이크 타일을 깔아 장식되어 있다. 보이드 주변 네 곳의 원기둥은 주요부를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상부는 회반죽을 시공한 후에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다.²¹⁾ 중앙계단의 바닥은 대리석위에 고무타일로 마무리하고 낫쇠 논슬집을 붙여 시공하였다. 계단의 주요부분은 대리석 마감이고, 난간두껍도 대리석으로 마무리하여 주물장식을 사용하여 장식을 하였다. 이 계단의 중요 디테일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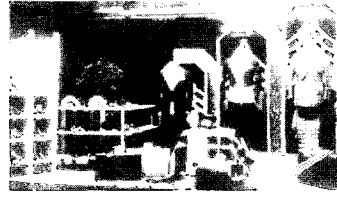
3) 쇼윈도우(Show window): 상품의 외부 진열을 가능케한 쇼윈도우를 설치하게 된 것은 대형 판유리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쇼윈도우 사용의 의미는 외부전시라는 새로운 영업효과외에도 내향적(內向的)이었던 전통적인 상점계획을 외향적(外向的)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쓰코시는 출입구 주변의 외벽에 폭 4.5m, 4.2m, 높이 2.4m, 유리두께 10mm의 쇼윈도우 5개를 설치하였으며, 옥상온실에 설치된 곡면유리와 함께 획기적인 것이었다.²²⁾

쇼윈도우의 바닥은 판자를 깔아서 여세기 붙임 마무리였고, 판벽은 티크재로 사용하고 상부는 장식창살을 붙여 만들고 천정에는 목조 격자천정으로 시공되었다. 이 쇼윈도우의 설치로 근대 백화점의 파사드를 변화시켰고 이후 타 백화점들이 모두 쇼윈도우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림 6> 조선물산진열소

4) 조선물산진열소(朝鮮物産陳列所): 1층 서측 현관 옆에 위치한 조선물산진열소의 디자인은 한국전통의장을 재현하여 디자인하고 있다. 미쓰코시백화점 진관에서 유일하게 한국적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7> 미쓰코시백화점 매장

5) 각층의 매장: 각층의 매장은 쇼케이스를 이용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형태를 취하는 자유로운 배치(Free flow system)를 이용하고 있다. 지하1층 바닥은 타일을

깔고 2층 이상 바닥은 목재 블록으로 깔았고, 벽 및 천정은 회반죽으로 시공한 후 주요부는 수성페인트로 마무리하였다.²³⁾ 이는 상품의 진열을 돋보이게 주위의 혼란스런 디자인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사례라고 본다.

6) 3층 제1응접실: 3층은 고객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과 응접실,



<그림 8> 3층 제1응접실

사교실, 귀빈실, 지점장실 등 귀빈들을 위한 시설이 위치한 층이다. 제1응접실은 동쪽에 위치하여 배란다를 볼 수 있고, 면적은 8평 규모로 비교적 크고, 귀빈을 상대하는 장소로서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을 위해 커튼, 카펫을 깔고 주요벽을 벽지를 붙여 장식하고 소벽(小壁)은 회반죽을 바른 후 페인트로 마감하고 천정은 회반죽 마감후에 수성페인트칠을 하였다.

7) 제 2응접실 및 여성 사교실: 3층 제 1응접실 옆에 제 2응접실 및 여성 사교실이 위치한



<그림 9> 3층 제2 응접실 및 여성 사교실

다. 이 사교실은 30평 정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면적으로 실내의 분위기는 고급스런 조명기구와 가구들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마감재료는 바닥에 리노륨(Lino Leum) 위에 부분 카펫

을 깔았고 벽에는 문양이 큰 벽지를 바르고 천정과 연결되는 소벽들은 천정과 함께 회반죽으로 마감한 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미쓰코시홀

8) 미쓰코시홀(三越Hall): 4층에 서측면에 위치한 미쓰코시홀은 일본풍(和風)으로서 좌석 300석으로 당시의 규모로는 큰 52평 규모의 공간이다. 천정은 격자보들로 구성하고 무대 부분은 목재(노송)으로 마감하고 소벽은 벽지를 붙여

21) 앞의 책, p.39

22) 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 2002, p.122

23) 김정동, 신세계백화점 현황 및 실측보고서, 목원대 건축근대사연구실, 2004, p.39

고 천정은 회반죽으로 마감한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바닥은 목재 블록을 깔아 일반적으로 강당과 같은 분위기보다는 고급스러움을 주기위해 무대 부분에 천을 이용하여 장식하고 무대 상부에는 문양을 넣어 포인트를 주고 있다.

9) 대식당: 4층 위치한 대식당은 67평 규모로 150인-200인까지 수용 가능한 대식당이다. 대식당을 위한 25평 규모의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식당에는 별실이 따로 계획되어 있다. 실내마감 재료는 대식당답게 화려한 석고몰딩을 보와 천정에 마감으로 장식하고 천정을 회반죽 마감을 하여 수성페인트로 마무리하고 벽은 목재판과 부분적으로 벽지를 사용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바닥은 목재 블록으로 마감하여, 중후함을 갖도록 연출하였다. 특히 주방측의 상부벽면의 문양벽지는 그래픽한 벽면으로 연상케하고 포인트 벽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기둥의 장식은 보와 보를 연결하는 점에 호화스러운 석고 몰딩을 이용하여 장식성을 강조하고 벽부 조명 등을 사용하여 두 개의 기둥을 디자인의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1> 4층 대식당 실내



<그림 12> 대식당 천정 부분

3.2. 조지야 백화점(丁子屋百貨店)

(1) 조지야(丁子屋)



<그림 13> 조지야 외관

조지야(丁子屋)은 1904년 일본인들의 핵심 상권이었던 황금정(지금의 충무로)에서 소림양복점(小林洋服店)을 경영하던 소림원육(小林源六)이 1921년 4월에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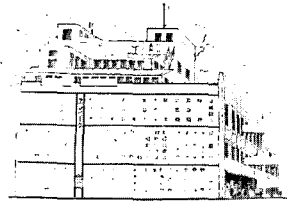
1) 공간구성

당시의 평면 및 도면 자료가 없는 상태지만 조지야소사(丁子屋小史)를 보면 1층은 식품부, 2층은 양복부, 3층은 가구 및 기기를 판매하는 매장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수직적 분화와 층별 매장의 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층 식품부에서는 약품, 화장품, 연초, 주류, 과자 등을 판매하고, 2층 양복부에서는 양복, 코트와 혼례 용품 등 3층에는 전기기구, 시계, 귀금속, 가구, 학생복 등

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실내디자인

조지야백화점의 실내사진으로 유일한 조지야소사(丁子屋小史)에 실려있는 2층 양복부의 전경에 나타난 사진을 보면 가구 및 진열대와 디스플레이 방법 등이 현대의 실내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양복부에 진열되어 있는 기성복 매장의 전경은 양(量)에 의한 전시형태로 많은 상품을 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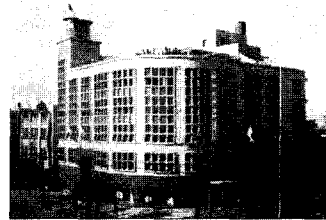
<그림 14> 조지야 매장 안내도



<그림 15> 조지야 양복부 실내

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 현대건물 조지야백화점



<그림 16> 조지야백화점 전경

그 후 1939년 9월에 남대문로 2가 123번지(현 롯데영프라자 자리)에 현대식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완공하였다. 이 건물의 설계는 대림조설계부(大林組設計部)의 한국인 황청하(黃淸河)와 일본인 건축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1935년경 반도호텔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로 그 당시만 해도 미쓰코시 경성지점, 화신백화점 등은 이름만 백화점이었지 상인들에게 소규모의 매장면적을 일정한 보증금과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스페이스(space) 임대업체에 불과했다.²⁴⁾

(3) 해방후의 조지야/ 미도파 백화점(美都波百貨店)

1946년 조지야는 상호를 중앙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되어 오다 1954년에 대한부동산 주식사가 건물을 인수하여, 수복후 서울로 되돌아온 무역협회가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에 보수작업을 현대건설과 대림토건이 1년 동안 보수공사를 하여 무역회관을 출범시켰다. 1954년 10월부터 회관 건물의 지하와 1, 2, 3층이 매장으로 개조되고, 상인들에게 점포를 내주어 일종의 임대백화점이 운영되기 시작했다.²⁵⁾ 또한 미도파 백화점이란 이름이 생겨 난것은 이때부터인데 미도파란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首都, 都會人)으로 그 뜻까지 그럴듯하게 엮어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²⁶⁾ 미도파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 백화점은 1956년 2월부터 우리나라 최초 정찰판매제를 도입

24)김준태, Renovation에 의한 한국 초기 양식건축의 보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논, 2004, p.111

25)앞의 책,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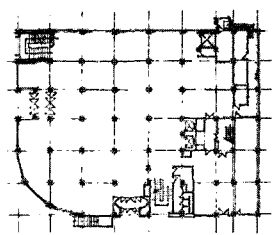
26)대농사, 대농 30년사, 1985, p.187

하고, 1963년 10월부터 직영백화점으로서의 준비 작업으로 지하와 각층 일부를 직영, 수탁 매장으로 바꾸어 운영하였다. 1969년에는 후라오까다마야(福岡玉屋)와 미도파 백화점의 제휴와 대만의 제일백화점(第一百貨店)과도 제휴관계를 맺어 매장의 재구성, 관리나 경영기법을 혁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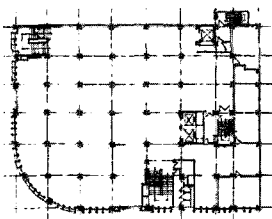
1973년 3월에 6층위에 4층을 더해 증축하고 에스컬레이터, 스프링클러, 자동에어컨, 오토메틱도어 등 현대시설을 계획하고, 시대백화점의 흡수계획과 함께 추진되어 대대적인 보수 및 증축공사에 착수하여 8개월만인 11월에 새롭게 개점하였다. 이때 「매장의 배치 및 디자인은 일본 제휴사인 다이마(玉屋)백화점의 기술진이 내한하여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였다. 프랑스의 오뿌랑팡 등 세계 5대 백화점의 장점들이 골고루 취택되었다는 이 내장 시설에만도 3억원이란 거액의 비용이 투입됐다.」²⁷⁾

이 내용은 우리나라 백화점 디자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로 개발된 진열장에는 자연광선에 가까운 선라인(Sun-line) 램프를 마포산업에서 특별 주문해 설치한 것과 종래에는 2m 정도밖에 안되어 많은 불편을 주어왔던 쇼윈도우 사이의 고객 통로도 외국의 백화점 3m 너비로 설치하였다. 부대시설로는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장치, 이동식 조명장치, 상하(上下) 에스컬레이터, 3대의 엘리베이터, 카리프트를 설치하여 1백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옥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중앙 집중식 냉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졌다. 또한 고객들이 쇼핑중 쉴 수 있는 다방이나 휴게실을 두고 특히 4층에는 이태리식 고급 그릴과 스낵코너, 6층에는 23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식당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시설에도 만전을 기하였다.²⁸⁾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백화점 디자인에서는 획기적인 내용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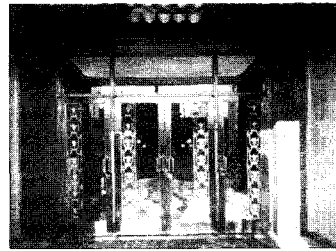
<그림 17> 1층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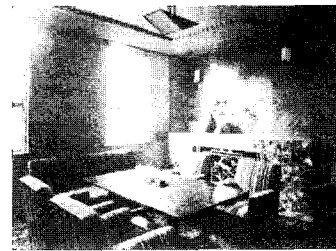
<그림 18> 2층 평면

1) 공간구성

조지야(丁子屋)의 내부공간은 건립당시의 도면자료의 부재로 정확히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1937년의 보수 및 증축공사 이전 자료를 살펴보면, 상이하게 배치된 기둥의 배열을 보면 백화점 상품진열을 고려한 공간을 사전에 계획하여 시공된 점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양측면에 주 출입구를 계획하여 건물주위의 통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보도에서의 고객 접근이 원활하도록 계획되어졌다. 1973년의



<그림 19> 북측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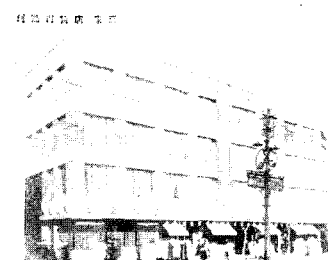
<그림 20> 2층 귀빈실



<그림 21> 4층 식당

적 모던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4층의 식당은 조지야 백화점 외관에서 나타나는 양식주의를 탈피한 국제주의적 경향을 표현하듯 단순한 형태의 근대주의적인 표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지야의 입면에 나타나고 있는 격자형의 단순 표현은 4층 식당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3. 동아백화점(東亞百貨店)



<그림 22> 동아백화점 외관

1916년 최남(崔楠)²⁹⁾이 양품잡화, 문방구, 학용품을 취급하는 덕원상점을 종로 2가 26번지에 설립하여 1919년에 부인전용 백화점인 동아부인상회를 종로2가 31번지의 탑골공원 서편에 개점하여 성공을 한 다음 1931년에 민

규식이 종로에 4층 건물을 신축하자 이 건물을 전세 얻어³⁰⁾ 1932년 1월에 동아백화점을 개설한 것이 조선인이 설립한 백화점의 효시이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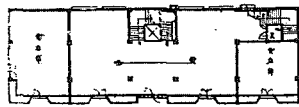
29)보성고보와 일본 이끼다(秋田)공업전문학교를 나와 상업은행 동대문지점에 근무하면서 인사동 입구에 잡화상을 운영하여 덕원상점을 설립한 사람으로 일신백화점에 대항해서 최초로 한인백화점을 설립한 기업인.

30)월간 중앙 45호, 1975.12, p.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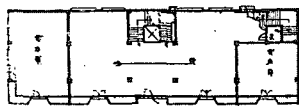
27)앞의 책, p.197

28)앞의 책, p.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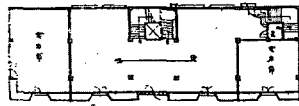
1932년 7월에 박홍식이 경영하던 화신상점에 상호 및 상품, 경영권 일치를 양도하였고, 화신상점과 동아백화점을 육교로 연결하여 영업하였다.³²⁾ 그러나 동아백화점은 최남이 근대백화점을 만들 계획으로 점내의 진열과 장식에 특히 힘을 기울였다. 이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 백화점내에 진열과 장식에 대한 내용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동아백화점 신축공사 개요를 보면 연건평 508평 규모로 철근콘크리트조로 1931년 5월에 기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박길룡 선생의 설계작품이다.



<그림 23> 1층 평면도



<그림 24> 2,3층 평면도



<그림 25> 4층 평면도

(1) 공간구성

동아백화점의 내부공간구성은 1층에는 임대 점포와 매장이 구성되어 있고, 출입은 각기 임대 점포를 직접 출입할 수 있는 2개의 출입구와 매장을 출입하는 3개의 출입구가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에 중앙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 화장실과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다. 2층과 3층은 모두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에는 대형식당과 중앙계단 정면에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백화점 중앙부에는 대규모 '텐센트 스토어(十錢均一市)'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서구식 판매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도된적이 없던 획기적인 아이디어였

다.³³⁾ 그러나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추구하는 텐센트 스토어(十錢均一市)는 당시 고객에게 잘 알려지지 못해 실패했다고 전해진다.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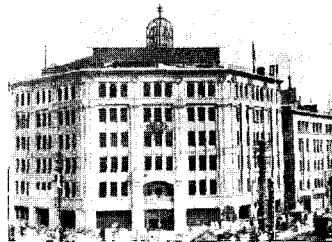
동아백화점은 설립자 최남이 미쓰코시백화점에 뒤지지 않는 현대식 백화점으로 만들기 위해 점포디자인과 진열 장식 등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는 최남의 경영원칙 6가지 중에 상품의 진열은 남의 눈을 끌게 한다.³⁴⁾ 라는 경영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朝鮮と建築」 1932년 제2호에 게재된 종로백화점의 유일한 실내사진인 식당의 실내를 보면 주방 측면에 벽면



<그림 26> 식당 실내

을 식기류를 수납할 수 있는 장식벽을 설치하고 천정에 호화로운 조명과 문양이 있는 커튼을 설치하여 현대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마감재료로는 벽과 천정 모두 백색 뽀뽀칠을 하고 계단과 바닥은 인조적 물갈기로 마감되었다.

3.4.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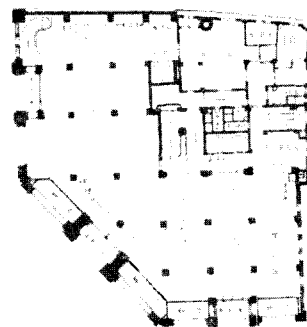
<그림 27> 화신백화점 외관

1932년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박홍식 사장은 화신백화점(서관)과 동아백화점(동관)을 연결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육교를 가설하여 두 건물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형백화점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화신

50년사에서는 이 건물에 「외관장식에만 치중하지 않고 풍부한 우량상품의 진열로서 내부에 충실을 기했다」는 글이 주목된다.

그러나 1935년 1월 목조 4층 건물인 화신백화점의 화재로서관 전체와 동관 일부가 전소되었다.³⁵⁾ 1935년 5월 기공식을 한 신축건물의 규모는 대지 324.8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건평 2,034.4평의 근대 르네상스 양식을 취한 이 건물의 설계는 건축가 박길룡에 의해 설계되어 1937년 11월에 전관이 완공되었다.

(1) 공간구성



<그림 28> 1층 평면

화신백화점의 준공당시의 공간구성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하에는 상설시장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부와 식기부(食器部)를 두고 지하층으로부터 지상까지 15인승 엘리베이터 3대를 설치하고 2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시설하여 고객의 편의와 충애를 받게 하였다.³⁶⁾ 그리고 내부 매장구조는 상품진열별로 대별하여

1층에는 안내계, 상품권 매장, 화장품, 양품잡화부, 여행안내소를 두었으며, 2층에는 따로 견본실(見本室)을 상설하여 고객들의 물품선택을 용이하게 하였고 양품잡화, 주단포복, 귀금속,

31) 이상배, 서울역사총서(4), 서울상공업사, 서울시, 2003.1, p.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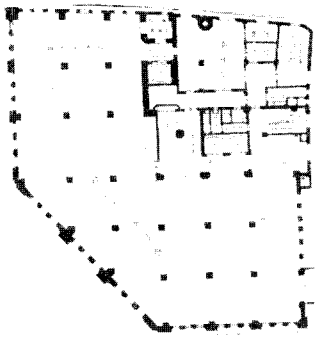
32) 황명수 외, 한국의 시장상업사, 신세계백화점 출판부, 1992, pp.198-202

33) 김병도·주영형, 한국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5,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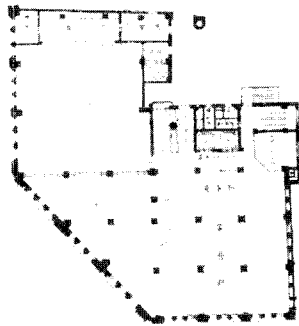
34) 조용기,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4, p.221

35) 김병도·주영형, 한국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5, p.65

36) 화신산업주식회사, 화신50년사, 1977.5, p.172



<그림 29> 2,3,4층 평면



<그림 30> 6층 평면

미술품, 시계, 안경, 3층에는 양품잡화, 부인아동품, 가봉실, 완구, 수예 등 4층에는 신사복, 가봉실, 문방구, 서적, 이발부, 5층에는 조선물산, 악기, 사진기, 화신식당부, 6층에는 가구, 전기기구, 가구모델룸, 홀, 스포츠 등으로 특히 대홀은 각종 대·소연회에 이용하도록 하고, 스포츠·라운드를 개설하여 운동기구, 오락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시설은 지금의 헬스 센터에 근간이 되었다.

「옥상에는 상설화랑, 사진부, 미용실을 두고 분수와 각종 스모그로 옥상정원을 만들어 도심의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고, 전망대 구실을 하게 하였다.」³⁷⁾ 따라서 이러한

매장 구조는 지금까지도 매장공간 구성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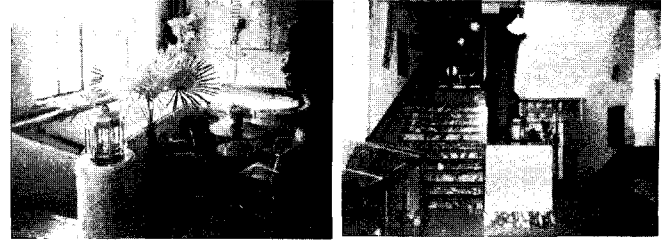
(2) 실내디자인

1층 현관은 「대리석으로 꾸며 웅장함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현관 안쪽으로는 화려한 천정 장식과 대리석 계단, 화이트 브론즈장식, 타일 등 명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라고 화신 50년사에서는 밝히고 1층과 6층까지의 각종 매장은 각종 상품이 종류별로 진열되고 통로 좌우에는 쇼윈도우가 나란히 줄지어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통로 주위에 쇼케이스를 배치한 것으로 상품의 층별배치와 판매대의 레이아웃에 대한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층별 배치와 판매대 계획은 상품 선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의복과 귀금속 등은 상층에, 잡화는 하층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



<그림 31> 매장전경



<그림 32> 계단실

계획에서 중앙계단을 활용한 매장계획과 개별동선의 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서구의 근대적인 백화점에서 사용하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³⁸⁾ 이러한 계획은 고객을 최대한 긴동선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특히 5, 6층에 식당부와 홀 등은 여가를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홀에서는 각종 집회가 가능하게 한 점은 근대백화점의 특징적 공간구성이며,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모더니즘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바닥 마감재로는 지하에는 인조석 물갈기, 1층에는 모자이크타



<그림 33> 6층 대홀

일, 2, 3, 4, 5층에는 후로링, 일부식당 및 사진실에는 고무타일을 사용하고 벽과 천정은 백색회벽 마감을 하였다.」³⁹⁾ 마감재료 또한 모두 건축적 마감으로 별도의 장식적 개념은 없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4. 근대백화점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표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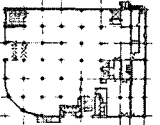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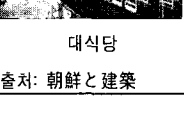
1930년대 초 일본에서는 표현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통적 서양고전의 틀을 깨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표현과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 당시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끼쳐 국제양식 설계수법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실내공간 계획은 디자인에 관계없이 단지 표면에 장식이 첨가되거나, 미적으로는 원형태를 잃을 정도의 지나치게 꾸며진 의미없는 장식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런 영향은 실내와 가구디자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장식, 낭만적 유행의 혼돈된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장식 위주의 실내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근대백화점의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의 표현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근대백화점의 층별 매장구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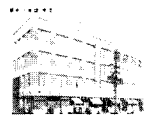





38)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 2002, p.118

39)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937.2, p.68

37)앞의 책, p.174

<표 1> 근대백화점 실내공간의 표현특성

구분	실내공간 표현특성		
 미쓰코시백화점 三越百貨店 1930.10 - 현재	공간 형태 표현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주변에 매장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구 근대백화점이 사용하는 계획수법을 사용. 쇼윈도우 설치로 외부전시를 하여 내향적이었던 전통적 상업계획을 외향적으로 바꾸어 근대백화점의 파사드 형태를 변화시키는 표현을 사용.	 1층 평면  3층 응접실
	요소 디자인	실내 외벽, 천정재료는 회반죽으로 마무리하여, 칠 마감하는 일제강집기 건물의 실내마감재료와 동일함. 휴게실, 응접실 등의 실내디자인 요소는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석고몰딩과 목재, 석고 위에 흰 페인팅을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품위있는 디자인을 연출.	 매장 전경  4층 대식당 출처: 朝鮮と建築
출처: 朝鮮と建築	표현 특성	공간별로 장식을 사용했지만 모던한 가구를 사용하여 질중주의적 양식을 선택.	출처: 朝鮮と建築
 조지아 丁子屋 1921.4 - 1939	공간 형태 표현	층별매장의 분리구성으로 중직적(重直的)분화와 층별 매장의 분화가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층별 안내도
	요소 디자인	가구 및 진열대와 디스플레이 방법이 현대적 디자인 방법과 유사함. 대량 전시 형태를 취하고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	 양복부 실내 출처: 丁子屋小史
	표현 특성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고 과거 양식의 소재들을 복사한 형태의 가구 사용으로 질중주의적 양식을 표현.	 양복부 실내 출처: 丁子屋小史
 조지아백화점 丁子屋百貨店 1939. 9-1954	공간 형태 표현	도로 양측에 주출입을 구성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양측면의 계단을 설치하여 고객동선을 길게 유도하는 개방형 공간형태로 현대적 공간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1층 평면  귀빈 응접실
	요소 디자인	고급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각 디자인의 요소들에 장식을 추가하여 고급감을 연출하고 집기류인 쇼케이스와 장식장을 현대적으로 표현.	 귀빈 응접실
	표현 특성	외관에 나타나는 양식주의를 탈피한 국제주의 경향을 표현한 근대주의적 경향을 나타냄.	 대식당 출처: 朝鮮と建築
	출처: 朝鮮と建築	출처: 朝鮮と建築	출처: 朝鮮と建築

 동아백화점 (종로백화점) 1932 -1935 출처: 화신50년사	공간 형태 표현	평면기운데 중앙계단을 계획하여 북측면에 코아를 형성시켜 간결한 매장 형태를 구성하고 중앙양측에 임대점포를 구성하고 4층에 대형식당을 구성하여 개방형 단순형태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음.	 1층 평면  4층 식당 출처: 朝鮮と建築
	요소 디자인	마감재료로는 벽, 천정에 백색 락칠을 하고,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로 단순 명료한 디자인을 하고 있음.	출처: 朝鮮と建築
 화신백화점 1937 - 1990 출처: 서울근대 공간 디지털 컨텐트·근대업서	공간 형태 표현	매장통로 주위에 쇼케이스를 배치하여 판매대의 레이아웃의 체계적 계획으로 근대백화점의 특징적 공간구성으로 모더니즘의 분위기를 나타냄. 특히 상층부의 식당, 홀 등에 나타나는 공간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모던스타일을 보이고 있음.	 1층 평면도  식당 실내  스포츠 라운드 전경 출처: 화신50년사
	요소 디자인	바닥 마감재료로 인조석 물갈기, 모자이크타일 등 내구성을 중시하고 식당, 매장 등에는 고무타일, 후로링 목재 등을 사용하고, 벽, 천정은 백색 회벽 마감으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출처: 화신50년사
표현 특성	공간에 부분적 장식을 사용하지만 모던한 분위기 연출로 질중적 양식을 채택하고 있음.	출처: 화신50년사	출처: 화신50년사

<표 2> 근대백화점 층별 매장구성 비교표

백화점명 층별	미쓰코시백화점	조지아백화점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지하	베이시먼트 스토아, 실연장, 중담품상담소, 이발실, 식당, 양품잡화	식료품, 오락실		식료품부, 식기부
1층	휴게소, 일반매장(약국, 여행안내소, 화장품코너, 일본선발코너, 고급식품 매장), 상품권 매장, 조선물산 진열소, 상담실, 여행사, 사무공간	식품부(약품, 화장품, 면초, 주류, 피자 등)	숙녀용품	임대점포, 매장 안내계, 상품권 매장, 여행안내소 화장품, 양품잡화부
2층	일반매장(오목 맞춤복, 기성복), 휴게실, 미용실, 드레스룸, 사무공간	양복부 (양복, 코트, 혼례용품 등)	숙녀의류 귀빈실	매장 건본실, 양품잡화, 주단포복, 귀금속, 미술품, 시계, 안경
3층	일반매장(신사양복, 숙녀양장코너, 재단실, 신사용모자, 구두), 휴게소, 제1음접실, 제2음접실, 부인사교실, 가봉실, 마감실, 사무공간	전기기구, 시계, 귀금속, 가구, 학생복 등	신사 및 아동용품	매장 양품잡화, 부인 아동복, 가봉실, 완구, 수예
4층	일반매장(귀금속, 기구매장), 미쓰코시홀 무대, 제2층, 대식당, 휴게실, 사무공간	가사용품 및 아동용품, 식당	대형식당, 휴게실	신사복, 가봉실, 문방구, 서적, 이발부
5층		외국인 전용매장		조선물산, 약기, 사진기, 식당부
6층				가구, 전기기구, 가구모델룸, 홀, 스포츠 라운드
옥상층	옥상정원, 미쓰코시 화랑, 사진실 및 대합실, 다실, 온실 및 원예용구매장, 사무공간			상설화랑, 사진부, 미용실, 옥상정원

4. 결론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근대백화점의 태동과 변천과정을 시대적 배경으로 정리하고 근대백화점에 나타난 실내공간 구성을 파악하여 실내공간 표현특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근대백화점의 태동은 일제강점기에 한국내에 일본인의 백화점 설립에서 미쓰코시백화점 처럼 지점 설립으로 일본의 근대백화점을 직수입한 경우와 조지야(丁子屋) 백화점 같이 한국내에서 자신이 상점을 성장시켜 독자적으로 근대백화점을 설립한 경우,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경우인 화신백화점은 동아백화점을 통합하여 대형 근대백화점으로 발전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근대백화점 효시인 미쓰코시, 조지야, 화신백화점 등은 건축계획에서부터 백화점의 매장계획, 고객의 동선계획, 상품의 입출하, 인테리어 디자인 등 백화점에 관련된 계획적 요소들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고려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872년 에라플랑쎬(N.A Laplanche)가 설계한 근대백화점의 효시인 몽마르쎬의 백화점 계획과 같이 매장의 중앙계단 배치로 그 주변에 매장을 배치하는 고객동선 유도 계획과 계단 홀에 상부를 옥상층까지 연결하여 공간적인 개방감을 갖도록 하는 매장계획, 옥상정원의 설치, 천창의 설치로 광정(光庭)을 만들어 화사한 분위기 연출, 고급스러운 상점에 이미지를 나타내는 계획 등은 일제강점기의 근대백화점의 계획수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쓰코시의 경우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부터 매장 레이아웃과 인테리어디자인을 동시에 계획하여 근대적인 백화점의 매장계획을 시도하였다.

이는 한국 근대백화점의 실내디자인 계획도 건축설계단계에서 고려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전통적인 상점계획을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는 계기는 쇼윈도우 사용으로 외부전시라는 새로운 상점 계획을 외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상업건축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백화점 건축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로 백화점이 상품만 판매하는 상업적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 식당, 카페, 원예, 사진실 등을 배치함으로써 문화휴식의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백화점의 실내공간들은 근대화를 지향하면서도 충분히 그 시대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양풍(洋風) 스타일이 지배적이고 많은 양식이 공존하는 절충주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대적 혼탁에 따르는 실내공간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의 건축사적인 면을 모르는 외국 디자이너에 의해 설계되어지고, 보수, 증축 공사 및 리뉴얼 공사시에 외부의 전면적 개조는 기존 근대백화점이 갖는 건축적 역사성 가치를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인식 결여와 기능적, 경제

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올바른 실내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대 실내공간 뿐만 아니라 근대 실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근대 실내건축공간의 근원적인 공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2.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3. 김정동, 신세계백화점 본관 현황 및 실측조사보고서, 목원대 건축근대사연구실, 2004
4. 이상배, 서울역사 총서(4권), 서울 商工業史, 서울특별시, 2003.1
5. 오윤희·이희천 공저, 백화점 경영, 서울남두, 2000
6. 조용기,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4
7. 황명수 외, 한국의 시장상업사, 신세계백화점 출판부, 1992
8.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25년의 발자취, 1987
9. 신세계,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화보집, 2000
10. 화신산업주식회사, 화신40년사, 1966.12
11. 화신산업주식회사, 화신50년사, 1926-1976, 1977.5
12. 화신산업주식회사, 화신50년사, 1977.5
13. 김병도·주영형, 한국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5
14. 山本武利·西澤保 공저, 百貨店の文化史, 세계사상사, 1959
15. 김준태, Renovation에 의한 한국 초기 양식건축의 보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논, 2004
16. 박대준, 한국 상업건축의 변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02
17. 박두규, 한국대형 소매기관 영업성과의 결정요인분석, 고려대 박논, 1989
18. 오인옥, 역대대통령 관저 및 집무공간의 실내디자인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56호, 2006.6
19. 오인옥, 근대 호텔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과 실내디자인 사적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57호, 2006.8
20. 오인옥, 조선총독청사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60호, 2007.2
21. 임현진, 신세계백화점 재개발계획, 경희대 석논, 1993
22. 김정동, 화신 보존을 위한 제언, 꾸밈48호, 1984.5
23.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930.11
24.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937.2
25. 丁子屋小史, 丁子屋商店 편, 1936
26. 구자영, 백화점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백화점 협회보, 1994.1
27. 월간중앙45호, 한국인 최초의 백화점, 1975.12

<2007. 2. 27>